

〈어항개발 50년〉 발간 ‘330일의 기록’



최규철 한국어촌어항협회 어촌본부 어촌진흥실 과장

미래를 보는 과거의 거울

해양수산부는 2011년 〈한국의 어항〉 발간을 통해 우리나라 109개 국가어항의 오늘을 소개했다. 특히 항공 촬영으로 어항의 전체 모습을 통찰하고, 지상촬영으로 어항의 생동감 넘치는 면모와 어업인의 삶과 연계된 모습, 국민의 생활과 밀접해진 어항의 확장성을 사진으로 포착해 내 호평을 받았다. 더불어 국가어항의 유래와 개발연혁, 어항의 특징, 주변 관광지와 맛집 등 다양한 정보를 수록해 여행가이드북으로도 손색없이 꾸민 바 있다.

〈어항개발 50년〉은 〈한국의 어항〉과 같은 연장선상 위에서 어항의 발전 모습을 과거로까지 확장하는 기획이었다. 〈한국의 어항〉과 차별점은 우리나라 어항개발 50년의 역사를 정립함으로써 사료로서의 가치를 확보함은 물론, 어항개발 정책수립에 유용한 기초 자료를 구축했다는 점이다. 〈어항개발 50년〉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어항개발에 본격투자를 시작한 지난 50년의 시간을 압축해 보여주고, 그 개발의 역사를 통해 어항의 발전상을 조명함은 물론 새로운 국내외 환경에 부응하는 어항개발 발전 방향 등을 모색하고자 했다.

결과적으로 완성된 〈어항개발 50년〉은 과거 어항개발 과정에서 원로들이 말하는 비하인드 스토리와 1900년대 초반부터 현재에 이르는 어항의 변천모습을 담은 400여 개 사진자료를 수록함으로써 사료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기획에서 착수보고까지

2012년 이후 반세기에 이르는 어항개발 역사를 정리하자는 의견이 해양수산부 관련부서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개진되었고, 어항 관련 원로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많은 지지를 얻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13년 초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의 주도로 <어항개발 50년> 발간 계획이 수립되었다. 2013년 6월 한국어촌어항협회가 기획과 총괄진행을 맡으면서 본격적인 어항개발역사의 발자취를 찾아가기 시작했다.

7월 12일 개최된 착수보고회에서는 어항개발 초창기부터 현재까지 어항 관련 주요 통계자료와 관련 사회·인문·생활환경을 기술한 '어항개발 통사'와 109개 국가어항별 개발과정을 정리한 '어항개발 부문사'로 구성한다는 큰 틀을 제시했다. 아울러 <어항개발 50년> 발간과 함께 수집·생산된 자료들은 데이터베이스(DB)화 하여 향후 어항개발 정책수립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출항, 그물을 놓다

착수보고회를 마친 이후 전체구성안 마련을 위한 자료 수집에 들어간 협회는 진행 실무자와 작가가 참여하는 회의를 통해 가연표(어항개발 연표) 작성과 함께 <어항개발 50년> 구성안을 기획했으며, 8월 30일 제1차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제1차 자문회의에는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배길중 사무관을 비롯해 협회관계자, 류간성, 장철호, 김형인, 안익성, 이진호, 박철우 위원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어항개발 50년> 발간 진행계획이 보고되었으며, 기 마련한 전체구성안을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1996년 3월 발간한 <韓國漁港史> 이후 처음 시도되는 어항개발 역사서의 발간에 거는 기대가 컸던 만큼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고, 역사 기술에 대한 진지한 당부도 이어졌다.

한편 이 자리에서는 어항개발의 역사를 시대적 구분으로 분류하는 기법을 채택키로 하고, 시대별로 중요 개발사를 정리해 시대적 이해를 높이는 방향으로 기술토록 했다. 정부의 어항개발 관련 간행물이나 기존의 개발사들이 부문사 형태라 역사적인 이해를 높이는 데는 부족했던 점을 감안 새롭게 쓰일 어항개발사는 사회적 흐름, 시대적 상황, 전체적인 개발 기초를 살필 수 있는 연대기적 구성을 지향하자는데 합의했다.

제1차 자문회의 개최에 따라 <어항개발 50년> 실무준비팀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진호, 김형인 위원 등 6인의 어항개발 원로들의 인터뷰가 우선 진행되었다. 수산청 초기 시절부터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며 우리나라 어항개발의 산증인이었던 원로들과의 인터뷰는 자료나 문서로는 알 수 없었던 귀한 증언들로 매우 소중한 자료가 되었다.

수산청의 발족과정에서, 국동항과 서거차항의 차관 도입 뒷이야기, 우리나라 어항개발의 효시라 할 수 있는 울릉도 저동항과 전남 가거도항 개발과정의 생생하고 혹독한 경험담, 어항개발 정책 수립 과정의 어려움 등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인터뷰 때마다 쏟아져 나왔다. <어항개발 50년>이 풍성해 질 수 있었던 이유다.

조업, 그물을 끌어올리다

인터뷰 진행을 통해 어항개발의 생생한 역사를 되짚는 한편, 협회와 해양수산부에 비치된 자료 수집도

병행했다. 협회의 창고에 쌓여 먼지를 머금고 있던 수십 개의 종이박스 꾸러미가 이때 햇빛을 봤다. 어항개발 초창기 때의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고, 수기로 기록된 어항개발 자료들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냈다.

역사의 편린들을 모아 하나의 그림을 완성해 가는 사사편찬 작업은 더디고 힘들었다. 한 장의 사진과 빛바랜 자료철 하나하나가 소중한 자산이었다.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연표의 역사로는 기록되어 있었지만,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사실도 의외로 많았다. 체계적으로 정리하지 못한 아쉬움들이 비로소 고개를 들었다.

쉽지 않은 자료 수집과정을 거치며 〈어항개발 50년〉은 씨줄과 날줄이 엮이며, 조금씩 모습이 갖춰지기 시작했다. 서 말의 구슬을 다 모으지 못했지만, 우선은 꿰기 시작했다. 부족한 자료에 대한 아쉬움이 컸지만, 향후 보완을 전제로 1차 집필에 들어가 산출물을 내놓았다. 자료 부족으로 인해 이빨 빠진 듯한 결과물은 2014년 2월 19일 열린 제2차 자문회의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다. 시대별 구분 안에서 모든 이야기들을 풀어놓다보니, 산만하고, 중복된다는 느낌이 강하다는 구성방법이 도마에 올랐다. 또한 집필진의 전문성 결여로 용어통일이나, 정확한 상황 전달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제2차 자문회의 이후 급히 집필방향이 수정되었다. 어항지정, 어항법 변천, 투자계획 등을 주

제별로 정리하는 부문사 형태와 어항개발 역사를 연대기적으로 구성하는 방법으로 이원화 하는 구성을 택했다.

감수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통사 내용 재구성 및 원고 감수를 위해 협회 이상기 본부장을 필두로 협회 실무진이 내용보강을 위해 투입되었다. 주재욱 고문과 한원석 부사장을 감수위원으로 위촉하고 어항개발 통사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원고 수정 및 목차 구성 회의를 6회 진행하고, 기술 부문과 어항관리 부문 원고를 추가했으며, 원고내용의 사실 여부 감수 및 미비한 내용 보강을 위해 10여 차례 이상 원고를 수정했다. 최종적으로는 해수부 의견 반영, 어항의 위상과 비전 등을 보강했다.

보다 정확한 집필을 위해 어항사의 경우는 각 어항의 과거 자료를 일일이 대조하며 개발연혁을 확인했으며, 과거 어항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수록하기 위해 각 어업관리단과 울릉군청을 비롯한 지자체, 통영수협을 위시한 지역 수협과 지역문화원의 도움을 받기도 했다.

발간 후에 남는 생각

1차 집필 이후 4개월 간 시행된 보강과정은 이전 작업보다 훨씬 높은 작업강도를 요구했다. 많은 협회 직원들의 전폭적인 협조가 없었다면 그 많은 정보를 담는 일도 이를 일일이 확인하는 일도 어려웠을 것이다. 특히 협회 직원들의 원성을 모르쇠(?)로 일관하며 직원들을 독려한 이상기 본부장의 공이 컸다. 충실한 어항개발사를 발간하겠다는 해양수산부와 협회의 의지를 이해하고 협조를 아끼지 않은 기획사와 집필작가의 성실함도 고마울 따름이다.

‘대한민국 해양 반세기’ 〈어항개발 50년〉은 많은 사람들의 노고로 태어났다. 하지만 아쉬움도 적지 않다. 보다 면밀하고 체계적인 계획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집필과정에서 어항개발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해 자문에 응했다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아울러 어항개발 분야의 자료가 많지 않았던 점은 불가항력적이었다. 그러나 이번 〈어항개발 50년〉 발간을 통해 역사의 중요성과 자료의 필요성을 공감한 것은 큰 소득이었다. 그 결과물이 발간 과정에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데이터베이스이다. 이와 함께 어항개발 50년의 기록을 집대성한 작업을 통해 협회의 역량이 한 단계 성장했다는 것도 큰 자산이 되었다. 